

국립전주박물관,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관 35주년 기념 23~24일 ‘동아시아 해양 제사와 교류’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개관 35주년을 기념해 23~24일 이틀에 걸쳐 박물관 강당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해양 제사와 교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안 죽막동 유적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동아시아 해양 제사 연구의 시각에서 죽막동 유적의 국제성과 해양 교류사에서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23일에는 충남대학교 우재병 교수의 기조강연 ‘고대 부안 죽막동 제사의 국제성과 역사적 의의’와 함께 1부 ‘고대 동아시아 해양 제사와 교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삼국시대 부안 죽막동 유적의 특징과 전개 양상(강소희 국립전주박물관),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변천과 부안 죽막동 유

적의 의미(임동민 계명대학교), 일본 고대 무나카타 지역의 교류와 해양 제사 유적(오카테라 미키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등이다. 발표 후에는 이나경(국립중앙박물관), 임해빈(국립전주박물관), 이택구(조선문화유산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4일에는 ‘동아시아 해양 신앙과 제사’를 주제로 △중국 마조·관음 신앙과 해양 제사(리우 정하오 중국 절강해양대학), △한반도 해양 신앙의 변천과 의미(진정환 국립전주박물관),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항해 신앙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아마우치 신지 일본 고베여자대학), △베트남에 있어서 ‘남해신’ 여러 양상의 성립과 전개(팜 레 후이 Pham Le Huy 베트남 국가대학), △한반도 서해안의 해양 신앙과 죽막동 수성당제(홍태환 무형문화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 양은경(부산대학교), 김아네스(한경대학교), 정순일(고려대학교), 김종호(서강대학교),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의 토론과 함께 1·2부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이 함께 한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죽막동 유적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 향후 국제적인 인적·문화적 학술 교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학계 및 전북지역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계기로 동아시아 해양 문화 교류 연구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학술총서를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학술심포지엄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와 토론 내용이 수록된 자료집이 현장에서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발달장애인 시선 담긴 사진전 ‘그해, 여름’ 개최

전주 덕진구청 갤러리 365서
30일까지 12명 작가 작품 전시

발달장애인 12명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사진전 ‘그해, 여름’이 21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청 갤러리 365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약 6개월간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로, 참여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더불어 이를 엮은 사진집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2명의 작가들은 일상의 순간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해 사진에 담아냈으며, 그 결과물은 ‘그해, 여름’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으로 출판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열린 출판 기념식에는 참여 작가 12명과 보호자,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주민들이



발달장애인 12명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사진전 ‘그해, 여름’이 21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청 갤러리 365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들의 성장과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원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히 사진 작품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강조

하며,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용기와 감동,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포착한 따뜻하고 진솔한 시선을 담은 사진전 ‘그해, 여름’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덕진구청 갤러리 365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무주서 다양한 전시회 열린다

무주군이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가을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무주회복미술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빛과 나무의 대화-무주인 인두화展”이 개최된다. 무주인 인두작가모임에서 주최·주관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불에 달군 인두로 나무 등의 표면

을 태워서 자연과 사람, 시간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을 표현한 인두화(우드버닝)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빛나는 무주”를 주제로, 김용신 작가를 비롯해 15명의 작가가 표현한 ‘고궁’, ‘고목’, ‘산수’ 등을 표현한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무주상상반디순 내 생활문화센터 마추침공간(B1)에서는 11월 9일까지 “화공마레...꿈을 그리다”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는 지역 내 40

여 명의 어린이들이 창의적 시각과 예술적 감수성을 담아서 그린 ‘자화상’, ‘파리 세느강’, ‘심해동물’ 등 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12월 2일까지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테마가 있는 인형전”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무주로 귀촌한 안영옥 작가가 만든 ‘나무’, ‘부엉이’, ‘사슴’ 등의 인형 30여 점을 선보인다. /무주=전문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3)

와, 재밌다!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어떡해…….”
목소리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 박명희가 다가오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곧 뚝뚝 떨어뜨릴 것처럼 보였다.
“호흡……. 많이 아프지…….”
명희는 남준 옆에 쏙그리고 앉아 어찌해야 할지 안절부절못하면서 울음을 입술에 물었다.
“히히, 괜찮아.”
남준은 거짓 웃음을 날리며 얼른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곤 양팔을 힘차게 앞뒤로 폈다. 오므렸다 폈다.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히히.”
아무렇지도 않기는. 아까 악동들에게 맞은 옆구리와 팔이 욕심거렸다. 통증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을 꼭 참고 면상을 곧게 펴려고 얼른 다림질 했다.
“아픈 거 같은데…….”
울음을 그친 명희는 매고 있던 책보를 풀러 보자기 끝으로 남준의 코피와 입술에 묻은 피를 닦아줬다.
“괜찮다니까…….”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얼굴을 닦아주는 명희의 손길이 싫지는 않다.
“그러게 왜 나서고 그래. 네 일도 아니면서…….”
“왜 내 일이 아니냐. 당연히 내 일이기도 하지. 너만 당골래 자식아냐? 나도 당골래 자식아. 우리는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도…….”
명희는 당당하게 말하는 남준의 대꾸를 반박할 수 없다.
“넌 당골래 자식이라는 말이 싫지 않아?”
“싫어야 싫지, 왜 안 싫겠어. 하지만 당골래 자식이라고 놀리는 놈들이 싫지, 당골래 자식 자체가 싫지는 않아. 너도 그렇잖아. 안 그래?”
명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니?”
“당골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씻어내 준다고 그랬어.”
“우리 애매도 그렇게 말했던 거 같아.”
“맞아 당골래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히히.”
“맞아. 해해해.”
남준과 명희는 아이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히죽거렸다.
“우리도 미끄럼 타러 갈까?”

“어디로? 입술이랑 아프지 않아? 피가 나잖아.”
“아니야. 괜찮아.”
남준은 다시 팔소매로 코와 입술을 쓱 닦고 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서 바둔 데가 있어. 묘지 올라가는 데 눈이 쌓여 있더라. 거기 가자.”
남준은 어느새 명희의 손을 잡아끌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명희는 남준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며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남준과 명희는 남준이 보냈다는 묘지로 올라가는 작은 언덕에 다다랐다.
무장 관아 터를 지나 뒤편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남준의 동네와 명희의 동네가 나오는데, 두 아이가 당도한 지점은 그 중간 어디쯤이었다.
남준은 허리에 찬 책보를 풀어놓고 주변에 있던 소나무 나뭇가지를 팔매로 탈 만한 크기로 꺾어 먼저 시범을 보였다. 소나무 잔가지에 달린 솔잎에 앉고 꺾어진 나무줄기를 잡고 발을 구르면 언덕에서 아래로 쌓인 눈을 따라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와, 재밌다!”
남준은 소나무 가지를 끌고 올라와 명희에게 내밀었다.
“너도 해봐.”
“네 것은?”
“다시 만들면 되지.”
남준과 명희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작은 언덕에서 소나무 가지로 미끄럼을 탔다. 둘은 점심밥도 잊은 채 미끄럼 타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양 불이 열기로 빨갛게 달아올랐고 거친 숨을 내뿜으면서도 얼굴에서 연신 웃음의 폭죽을 터뜨렸다.
“배고프다. 이제 가자.”
남준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는데 어느새 코피를 흘렸던 흔적과 입술 터진 부위가 말끔해보였다.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